

韓国語通訳案内士試験道場体験講座

次の文章の下線部を和訳しましょう。

近江八幡

한반도에서 호상을 배출한 도시로 유명한 곳이 개성이라면 일본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마을은 교토와 거리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산임수의 호반의 고장 시가현 오우미하치만(近江八幡)으로 개성에도 뒤지지 않는다. 시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신마치(新町)거리 양쪽에는 호상들의 저택 십 수채가 늘어서 있는 지역이다. 그 중의 한 저택인 구 니시카와 저택에 들어가 보았다. 모기장과 이불 장사로 당대에 막대한 재산을 모은 호상의 저택이라서 호화로운 저택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내는 매우 간소했다. 다만 높은 천장을 지탱하는 굵은 대들보와 검게 윤이 나는 기둥은 검약하고 소박함을 근간으로 삼았던 그들의 역량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오우미상인들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영학을 배운다.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안된다.”, “빈틈없이 손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갈 때를 가려야 된다.”, “성공하더라도 야비한 근성이라고 남한테 뒷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평소부터 떳떳치 못한 일을 하면 안된다.”, “이익이 적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익을 떠나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라” 등등.

현재 택시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기무라 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날마다 해 줬는데, 저도 겨우 한 사람 몫을 하게 되었을 때, 야박한 사람이다, 손익만 생각한다든지 혈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지만, 반성을 하고 나서 실패를 겁내지 않고 회사를 경영해 왔어요.

오우미하치만에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마을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해 주는 호반의 마을이 펼쳐져 있다. 이어서 습지대가 펼쳐져 있는 호반지역으로 향했다. ¹²선착장을 찾아서 제후가 즐겼던 뱃놀이를 흥내낸 유람선을 타고 돌아본다. ¹³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더 큰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물길사이를 작은 배가 노를 저어 서서히 지나간다. ¹⁴산들산들 흔들리는 갈대 소리와 물새 우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¹⁵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죠”라고 뱃사공 아저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을 햇살을 받으며 시간은 이렇게 흘러갔다.

へリポート移設問題

1997년, 나고(名護)시로 ¹미군 헬기기지를 이전하겠다는 미일양국의 합의 소식에 접한 시민들은 예사롭지 않은 이 일에 대해 그저 손을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의연한 태도로 데모행진을 하고 농성을 벌였다. 나고시에 사는 기지건설 반대파는 “²우리 고향을 지킬 것을 맹세하노라”는 구호를 쓴 머리띠를 맺고 흥분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³기지 주변이 안전하더니요? 그리고 기지를 건설한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등, ⁴들 자들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⁵돈을 받으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⁶그런 풍돈을 받는 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⁷미군기지 덕분에 윤택해지는 마을도 적지 않다든지 기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실업자를 받아들일 곳이 없다든지 그럴듯한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농담도 어지간히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⁸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⁹일이 발생한 뒤에 “거 봐, 말했잖아”라고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¹⁰건드리지 않으면 화를 입지 않는다”식의 무사안일주의야말로 평화를 망치는 거죠.”

¹¹백악관과의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이에 두고 한국에 미군기지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평화운동가들에게도 ¹²남 일 같지 않다. 고 참가하였다. 오키나와문제를 통한 ¹³일본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험받고 있다.